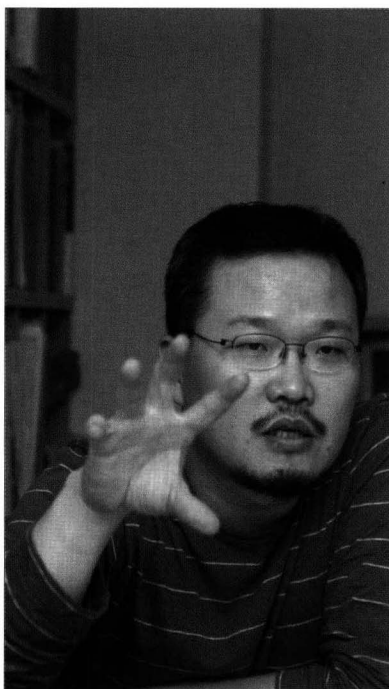


‘아틀라스 역사시리즈’ 기획위원 김성환 씨



편집 디자인을 총 책임진 김경균 씨.

● ‘역사신문’ ‘세계사신문’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 등으로 역사대중화에 앞장섰던 사계절출판사가 최근 새로운 대형기획물로 ‘아틀라스 역사 시리즈’의 1권 《아틀라스 한국사》를 선보였다. ‘아틀라스’란 말에서도 짐작되듯 이번 기획물은 국내사학계의 미개척지인 역사지도(Historical Atlas) 분야에 주목한다. 역사에 공간 개념을 붙여넣은 이 책은 총 183컷의 지도와 93개의 사진자료, 46개의 다이어그램을 실은 국내 최고의 역사지도서. ‘아틀라스 역사시리즈’가 과연 어떤 과정으로 구상, 제작되었는지 그 전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사계절출판사 기획위원 김성환 씨와 정보공학연구소 김경균 소장을 통해 들어보았다.

공간축으로 이해하는 역사책, ‘아틀라스’와 함께 한 2년-《아틀라스 한국사》

● 공간축으로 이해하는 역사서, 한국에는 왜 없는가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의 기획에 참여했던 김성환 씨는 2년 전부터 사계절출판사의 차후 역사 기획물을 고민하던 중 국내 사학계에서 유난히 역사지도 분야가 취약하다 사실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대부분 텍스트에 치중하고 있으나, 서양에선 이미 이름난 역사지도책이 많이 출간돼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등의 우수한 출판사에서 역사지도가 출간된 걸 보니 국내 역사지도서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김 위원은 역사의 공간 확장개념을 배제하고 통사적 기술만 시도했던 국내 역사책의 문제를 절실히 깨달으며 ‘아틀라스 역사 시리즈’ 기획을 가시화시켰다.

“우선 다른 역사물과는 다르게 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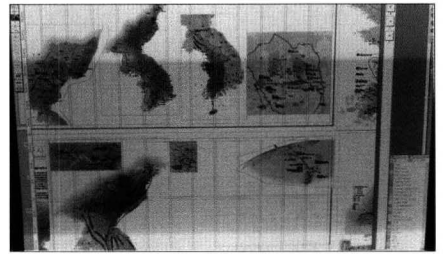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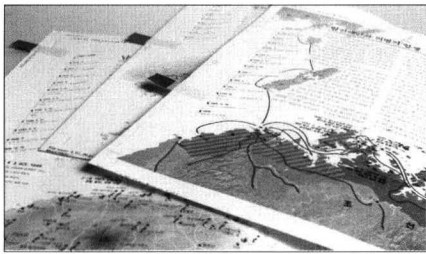
트와 지도 편집디자인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일인 만큼 출판사와 협의 후 곧바로 적합한 편집 디자인 회사를 알아보았죠. 수소문 끝에 정보공학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됐죠. 김경균 소장께서 역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김 위원과 함께 ‘아틀라스’를 함께 짚어지게 된 정보공학연구소는 그래픽 관련 작업부터 맥 디자인, 소규모 출판사업까지 병행하는 회사. 일의 특성상 디자인과 관련된 서양의 우수 출판물을 접해 왔던 김경균 소장은 사계절출판사 이상으로 해외 역사지도를 검토해 왔던 참이어서 이번 기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후 집필위원이 선정돼 편찬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들은 약 1년을 목표로 ‘아틀라스 역사 시리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총괄편집은 김성환 위원이 맡고 있었지만 이미지 작업

이 중요했기 때문에 정보공학연구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늘 필요했다.

● 입체감 살린 ‘아틀라스’ 만들어 겪었던 난관들

편찬위원회는 먼저 역사지도를 통해 우리 역사를 최대한 쉽게 이해시킬 방법부터 고민했다. 그런 뜻에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형식을 버리고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을 찾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페이지네이션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쪽 펼친 페이지를 한 쪽지로 설정해 지도와 간략한 역사서술이 함께 들어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페이지 구성 방식이었다. 게다가 매 쪽지가 시작되는 페이지 첫머리마다 연표를 만든다면 주제별로 찾고 싶은 역사적 사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페이지 구성 형식이 결정된 후에 편



《아틀라스 한국사》 아틀라스한국사편찬위원회 지음 | 사계절출판사 | 228쪽 | 값 23,800원

찬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각 페이지에 소개되는 지도의 입체감이었다.

“펼친 페이지에는 통사체의 간결한 역사서술과 지도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도 데이터를 구하는 문제였지요. 교과서 부교재로 쓰이는 역사부도 속의 평면지도 형식을 과감히 버릴 생각이었거든요. 저런 재미 없는 평면지도 말고 실제 지형과 지세를 실감할 수 있는 음영기복 지도를 만들자고 했고, 이를 위해선 지도와 관련된 디테일한 정보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입체감 있는 지도를 만들어내는 데서 뜻하지 않은 난관도 많았다. 특히 남한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상도 높은 지리정보를 구하는 일은 좋은 역사서를 출간하겠다는 출판사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런 자료를 갖춰야 할 정부의 관련 기관조차 역사무대가 되었던 지역에 대한 지도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하고 있지 않았다. 예컨대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활동했던 만주평원에 대한 양호한 해상도의 등고선 데이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오히려 외국의 인공위성업체가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를 보유한 실정이다보니 편찬위원회는 정부기관의 무관심과 소홀에 크게 낙망하기도 했다.

“고구려가 우리땅이라고 외치고들 있지만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어떻게 우리 것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정보도 없는 상태란 걸 알곤 씩씩해지더군요. 역사 정보 축적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을뿐더러 역사 자료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한 순간이었죠.”

이번 작업을 통해서 느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도에 대한 역사 연구자들의 마인드가 곱할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아틀라스 역사 시리즈’의 지도는 역사 연구자들의 논문, 단행본 저술을 기초로 구성돼야 했는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현장에 대한 고고학적 사실들을 담보하고 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결국 편찬위원회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지명 사전과 대동여지도 등 과거 자료를 참조, 많은 도움을 얻었다.

● ‘역사 읽기’와 ‘역사 보기’를
함쳐놓은 결정체

“그러다보니 시작할 때 정해놓은 출판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물론 술한 난관을 겪어가며 저희 스스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무척 많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도에서 해안선을 찾으며 옛 지형과 지

금 지형의 변화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구요. 여하튼 그런 과정들 속에서 꼬박 2년을 보낸 후 책이 나왔습니다.”

9월 중순에 출간된 《아틀라스 한국사》에 대해 편찬위원회는 “교과서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들의 심정에 동감하며” 만든 책이라고 고백한다. 단순 암기로 중요사건 연도를 외우게 하고, 맥락도 맞지 않은 갑신정변, 갑오경장을 같은 ‘갑’자로 시작한다는 논리 아래 몽둥고려 암기시키는 역사 교육에 회의를 느끼며 시작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 뜻을 반영한 듯 《아틀라스 한국사》는 텍스트로 딱 찬 역사서를 지양, 보기와 읽기가 한데 어우러진 입체적인 역사서로 남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제작기간 2년, 제작비 약 2억 원이란 적지 않은 투자를 통해 해낼 수 있었던 일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김성환 위원은 “학생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공간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지도만 보고 있어도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틀라스 한국사》와 함께 준비된 시리즈의 2권 《아틀라스 세계사》도 곧 독자들 곁에 선보일 예정이다. [4]

취재 김창연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